



▶ 광주FC는 오는 3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드래곤즈와 하나원큐 K리그2 2019 35라운드 홈 폐막전을 치른다. 사진은 지난 6월 15라운드 부천과의 경기에서 이도훈 득점 세리머니 모습. /광주FC 제공

# 광주FC, K리그2 우승... 마지막 역사 만든다

K리그1 승격을 확정된 광주FC가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드래곤즈와 하나원큐 K리그2 2019 35라운드 홈 폐막전을 치른다.

광주는 오는 3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드래곤즈와 하나원큐 K리그2 2019 35라운드 홈 폐막전을 치른다.

광주의 2019시즌은 거침없었다. K리그2 최다무패(19경기), 창단 첫 6연승, 팀 최다승 및 최다승점(현재 21승·73점) 등 솔한 기록들을 경신한 광주는, 매 경기 투지를 보여주며 한 시즌을 씩 없이 달려왔다.

지난 33라운드 우승과 함께 승격을 확정했지만, 광주는 아직 목마르다. 광주는 새로운 기록으로 역사를 장식하고자 한다. 바로 홈 무패 우승이다.

## 내달 3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서 전남과 홈 폐막전

승리 시 K리그 통산 17년만 홈 무패 우승팀 주인공

상상univ 플리마켓·우승 세리머니·경품 행사 등 다채

올 시즌 12승 5무(승률 85.3%)로 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광주는 홈 폐막전에서 패하지 않는다면 시민구단 최초이자 K리그 통산 17년만에 홈 무패 우승의 주인공이 된다. 이전 기록 팀은 2002년 성남일화전만이었다.

또 이번 홈 폐막전은 내년 축구전용구장으로 이

전함에 따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홈경기가 된다. 광주는 지난 9년간 치러진 170경기에서 희노애락을 같이한 구장인만큼 우승 세리머니와 함께 찬란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난 라운드 수원FC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한 광주는 김정환, 엄원상, 임민혁 등 젊은 선수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3:0 승리를 기록, 챔피언의 위용을 뽐냄과 동시에 내년 활약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여기에 최준혁, 여봉훈, 아슬마토프 등 주전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끌어올렸고, 부상으로 교체된 펠리페의 상태 또한 양호하다. 광주는 홈팬들에게 최고의 승리를 선사하기 위해 최정예 멤버로 전남전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는 전남과 10승 6무 5패의 성적을 거뒀다. 올 시즌도 2승 1무 무패로 강한 우세를 보였다. 전남은 승점 42점(7위)으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좌절된 상황.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전남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를 기록하는 등 막판 유희의미를 거두기 위해 필수적인 각오로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다. 김

영욱, 한찬희, 이우현 등 핵심자원들의 활약도 주의 대상이다.

한편 광주는 홈 폐막전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남문광장에서 KT&G 상상유니브와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통해 선수단 애장품을 판매, 수익금은 국민 재산과 신체 보호에 힘쓰는 소방관들의 방화복 및 건조기 기증에 쓰여진다.

또 남문출입구 MD상에서 10,000원 이상 구매 시 2019사인볼 무료 증정과 함께 K리그2 우승 기념티, 선수단 전 구성원 친필사인유니폼, 기성용 친필사인볼,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을 포함한 경품이벤트를 실시한다. K리그2 우승 시상식은 경기종료 후 진행될 예정이다. /오복 기자 boh@

## 자전거 김민오(강진군청), 육상 박서진(목포시청) 최우수선수 “영예”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제100회 전국체전 전남 빛낸 최우수선수상 순천여고 정구팀·광양시청 불링팀 학교·실업 최우수팀... “내년엔 더 분발”

김민오(20·강진군청)와 박서진(26·목포시청)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라남도선수단 중 ‘최고의 꽃’인 남·여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또한,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정구)팀과 광양시청 불링팀은 최우수팀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전남체육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스포츠공정위원회의에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선수단의 남·여 최우수선수상 최우수 학교팀·직장팀을 심의, 확정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라남도 남자선수

단을 대표하는 최우수선수는 김민오(강진군청)로, 그는 남자 일반부 자전거 MTB에 출전하여 01:34:02.28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박서진은 여자 일반부 해머던지기에서 59.10m의 기록으로 56.73을 던진 2위 정다은(익산시청)보다 2m30cm 이상 멀리 던지며, 압도적인 금메달을 획득하고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학교팀 최우수팀에는 현재 한국 소프트테니스 여고부 ‘무적팀’ 순천여고가, 실업팀 최우수팀은 ‘전통의 명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불링



김민오(20·강진군청)



박서진(26·목포시청)

팀이 각각 선정됐다. 올 시즌 전국규모대회에서 2차레나 단체전과 개인단식 4강을 모조리 휩쓸며 한국 소프트테니스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을 남겼던 순천여고 정구팀은 개인단식과 개인복식, 단체전까지 휩쓸며 세부 전종목(3개)을 석권했다. /장기호 기자 repf@

## 광주시체육회, 시민 대상 생존수영교실 성료

남부대 등 2곳서 생존수영 교육 호평 수중서 발생 응급상황 대처능력 배양

광주시체육회가 수중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해 예방과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생존수영교실을 열고 시민들의 호평 속에 마무리했다.

시체육회는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간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과 남구다목적체육관 수영장에서 ‘2019 생존수영교실’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생존수영이란 물에서 1분간 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영법을 말하는데, 단순한 수영교육이 아닌 자신의 키높이 이상의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며 나아가 응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일련



는다. 시체육회는 지난 세월호 참사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생존수영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왔다. 이에 생존수영을 활성화시키고자 일반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교실 사업을 진행했다. 생존수영교실은 응급수영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구명조끼 사용법 및 물에 뜨기 교육,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박정오 기자 jopark@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19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

# humanity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9.7-10.31

행사장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재)광주디자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암미술관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디자인센터